

맥코믹 신학교(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를 소개합니다

CROSS-CULTURAL *Urban*
Reformed ECUMENICAL

McCorm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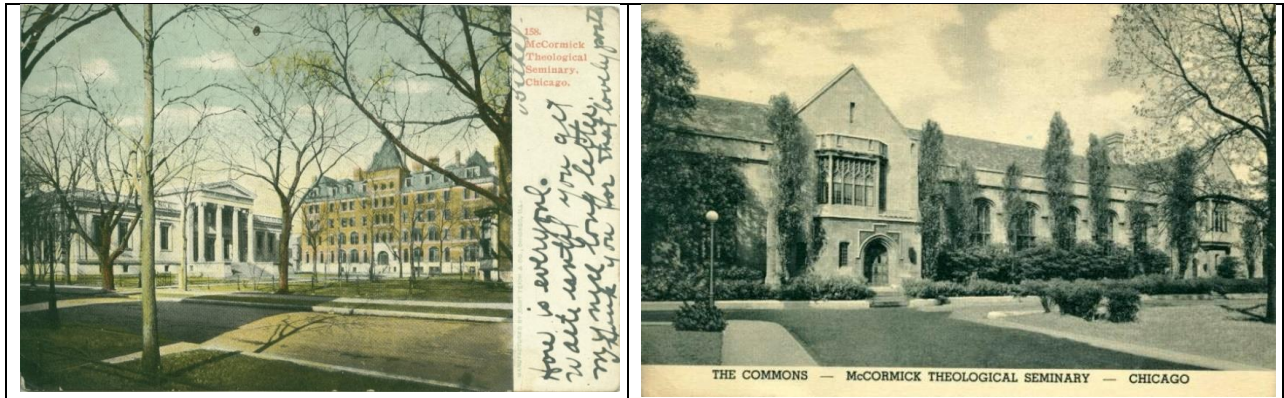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맥코믹 신학교는 교회와 사회를 위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육 기관입니다. PCUSA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의 시카고 노회 소속이며, 북미신학교협의회(ATIS)의 회원입니다. 본교는 다음과 같은 신학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석사과정 : Master of Divinity, Masters of Art in Ministry, Master of Theological Studies
- 목회학 박사과정 : Cross-cultural, Wright Scholar, Apostolic Assembly, ACTS Preaching, Ecumenical, and Korean program
- Certificate 과정 : Executive Leadership, Environmental Leadership and Ministry, Latin@Theology and Ministry.
- 국제학생 프로그램 : Summer Language School, Language Resource and Writing Center

THEOLOGICAL TRADITION and DIVERSITY

맥코믹은 PCUSA에 속한 11개 신학교 중의 하나로 장로교/개혁교회 전통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독교회와의 협력에 열려 있는 맥코믹에는 현 재학의 40% 정도가 장로교 외의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맥코믹의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누는 학생들의 개방성과 신학적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교수들의 다양성에 기초합니다. 맥코믹은 시카고신학교협의회 (Association of Chicago Theological School)의 회원이며 University of Chicago의 협력 교육기관입니다.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Campus, Lincoln Park, Chicago until 1975.

HISTORY

1829 Hanover Seminary, Hanover, IN 서부 개척지의 교역자 양성을 위한 예비 신학교로 시작
1840 New Albany Theological Seminary, IN 학교의 새로운 부지와 교수진을 위하여 확대 이동
1859 Theological Seminary of the West, Lincoln Park, Chicago 성장하는 도시 시카고의 신학 교육 기관
1886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 신학 발전, 학교 성장과 Cyrus McCormick 가족의 지원
1975 in Hyde Park, IL 캠퍼스를 정리하고 신학교 협력을 위해 이주
2003 New Building



New Campus Buildings in Hyde Park, Chicago since 2003

OUR MISSION STATEMENT:

-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배움과 가르침의 공동체입니다.
- 우리는 철저한 학문적 연구, 신철적 경험과 영성 훈련을 통하여, 신실한 기독교 목회와 지도력을 위하여 학생들의 은사를 배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 우리는 1929년부터 지금까지 PCUSA의 신학교이며 개혁교회 전통 안에서 성장하는 리더로서 에큐메니컬, 도시적, 그리고 다문화적인 기관을 이루고, 연구를 수행하고, 그리고 목회를 실천하기 위하여 헌신합니다.

CROSS-CULTURAL

점점 다양해지는 교회와 사회속에서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에 가치를 두고 목회를 실천하는 기독교 지도자를 훈련하는데 헌신합니다.

URBAN

우리가 위치한 시카고 메트로폴리탄이 신학의 중요한 자원일 뿐 아니라 목회를 실천하는 고유의 장이 되는 것을 인식합니다.

REFORMED

무엇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 문화의 변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성서의 기초, 만인들을 위한 정의와 자유 그리고 치유와 평화를 위한 헌신을 중심가치로 하는 개혁교회 전통위에 세워진 신학교육

ECUMENICAL

교단적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기독교 전통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기독교 연합을 위한 노력, 타종교인들과 대화하려는 의지를 가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위해 헌신합니다.

OUR CONTEXT, CURRENT SITUATION, AND VISION

현재의 신학교육의 환경은 많은 도전과 기회가운데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의 21세기 맥코믹의 사명을 위해 Vision 2040을 새롭게 했습니다. 맥코믹의 미래는 다양성, 혁신과 기술,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를 교육할 것입니다.



마펏 선교사와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1907년.



맥코믹 가족의 지원으로 신축한 평양신학교 건물

한국 목회자 교육과 맥코믹

1909년 한국에서 활동하던 40명의 선교사 중에 11명이 맥코믹 신학교 출신이었습니다. 한국의 장로교 신학교는 1901년 마펏(Samuel Moffett)이 평양의 자신의 집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시작하였습니다. 1902년에 두 명의 한국학생과 함께 정식으로 신학반을 지도하여 1907년에 7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신학교의 초대 교장 마펏과 Charles A. Clark, Sadie Moor, Charles Bernheisel, James Adams 등의 맥코믹 신학교 출신의 교수들은 신학 교육은 물론 초기 한국개신교 신학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펏의 노력으로 Cyrus McCormick (1809-1884)의 부인 Nettie McCormick(1835-1923) 여사는 11,000 만원을 기증하여 평양신학교의 첫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2층 기와 건물인 이 신축 교사는 1,000 명을 수용하는 채플이 있었습니다. 1922년에는 다시 McCormick부인이 70,000 원을 기증하여 3층 건물을 새로 지었고, 기숙사 6동 중 2채를 맥코믹 기념관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맥코믹은 증가하는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들과 협력하기 위해 Korean-American Ministry Center를 설치하여 한인교역자 계속교육과 한인 신학생 교육에 협력하였습니다. 그 이후 정교수로 윤승구, 전현, 한운천, 이재원 교수가 재직하여 한국 교회와 맥코믹의 신학교육의 가교가

되었습니다. 한국 유학생의 증가로 학생의 25%까지 이르렀고, 한국어 D. Min 과정이 개설되는 등 목회자 교육, 및 한국 신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협력이 증대하였습니다.

그 중 1993년부터 장로회신학대학교와 공동으로 D. Min program 을 운영하여 2000년대 후반까지 많은 한인 목회자들이 맥코믹의 교육을 공유하였습니다. 맥코믹 캠퍼스에서 미주 한인 목사들을 위한 D. Min 과정이 2017년부터 재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